

대학 기숙사 인기... 경쟁률 높아 대기자 명단까지

전남대 4101명 모집에 5414명 몰려 1.32대 1 조선대도 1.5대 1...인근 원룸·고시원도 '들썩'

고향인 대학생 박모(22·전남대 2년)씨는 매학기 원룸을 구하느라 골머리를 앓는다.

주로 인터넷을 이용, 매물을 파악한 뒤 발품을 팔지만 허위매물이 많다. 최근에도 인터넷을 통해 보증금 300만원, 월세 25만 원짜리 원룸을 찾아갔지만 집주인은 "그 방은 이미 나갔다. 다른 방을 추천해 주겠다"며 월세 35만 원짜리 방을 보여줬다.

광주지역 대학가의 평균적인 원룸 시세는 보증금 500만~1000만 원, 월세 30만~40만 원 정도. 관리비·전기세 등까지

포함하면 40~50만 원가량이다. 전세는 거의 찾기 힘들다.

박씨는 "기숙사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 수용 인원은 전혀 늘어나지 않아 원룸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광주지역 대학생들이 주거난에 신음하고 있다. 지역 기숙사 수용률은 매년 하락해 기숙사에 입주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려운데, 대학가는 전세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따르면 광주지역 11개 4년제 대학 정원대비 기숙사

수용률은 2012년(32.3%)→2013년(31.2%)→지난해(30.9%)로 매년 하락했다.

지난해 기준 대학별로는 ▲전남대 19.3%(4101명→5414명·경쟁률 1.32대1) ▲조선대 10.8%(2494명→3749명·경쟁률 1.5대1) ▲광주대 23%(1844명→2502명·경쟁률 1.3대1) ▲광주여대 26.7%(1126명→1299명·경쟁률 1.1대1) ▲남부대 17.7%(585명→696명·경쟁률 1.1대1) 등이다.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한 학생들의 처절한 몸부림은 그야말로 눈물겨울 정도다.

다른 지원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점이 부족한 A씨는 영어회화 수업을 듣는 조건으로 기숙사 입사 허락을 받는가 하면 B씨는 학교 측에 자신의 딱한 처지를 읊소하는 사연을 보내는 등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이 같이 학생들이 기숙사 입사 지원에

몰리는 이유는 최근 대학가 주변 방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 전남대와 조선대 기숙사 2인실 기준 월 기숙사비는 14만~17만 원으로 학교 주변에 방을 얻는 것보다 20만 원 가량 저렴하다.

기숙사 입사경쟁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대학가 원룸을 찾고 있지만 전세물량은 부족하고 월세로 전환한 원룸들도 6개월~1년치를 한번에 요구하는 곳이 적지 않다.

최근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직장인과 신혼부부까지 보다 저렴한 전월세를 찾아 대학가로 이동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학생 이모(23)씨는 "요즘 대학가 월세는 부르는 게 값이다. 너무 비싸 업무가 안난다. 결국 가난한 대학생들은 고시원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4 해질 18:09 달뜨기 23:52 달지기 10:30

한울 뽀인 등장군

제주도 남쪽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다.

지역별 날씨(°C)

광주	구름많음	-2/9	보성	구름많음	-4/8
목포	구름많음	0/8	순천	맑음	-2/9
여수	맑음	0/9	영광	구름많음	-2/8
나주	구름많음	-3/9	진도	구름많음	-1/8
완도	구름많음	0/9	진주	구름많음	-2/8
구례	구름많음	-4/9	군산	구름많음	-1/7
강진	구름많음	-2/8	남원	구름많음	-7/9
해남	구름많음	-2/8	홍산도	구름많음	3/8
장성	구름많음	-4/7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서~북서	1.0~2.0	남서~서	1.5~2.5
남부 면바다	서~북서	1.5~2.5	남서~서	2.0~3.0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1.5	남서~서	0.5~1.5
서부 면바다(동)	서~북서	1.5~2.5	남서~서	1.5~2.5
면바다(서)	서~북서	1.0~2.0	남서~서	1.0~2.0

생활지수

동파	25
운동	20
빨래	7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출발	도착	출발	도착
	05:40	17:52	10:53	23:14
여수	00:20	12:35	06:22	18:30

주간 날씨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	☁	☁	☀	☁	☁	☁
-1/9	-2/7	-2/7	-1/10	0/10	1/9	0/9



“노후원전 폐쇄하라”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회원 20여명이 9일 오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노후 원전인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1호기의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세월호 피해 가족들 “대통령·정부·정치인이 약속 저버렸다”

광주 방문 DJ센터 기자회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세월호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9일 세월호 참사 300일을 맞아 대통령, 정부, 여당을 상대로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00일 동안 진상 규명과 실종자 수습을 약속했던 대통령, 정부, 정치인들은 약속을 철저히 저버렸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가족협의회는 “우리 가족들과 국민은 지난 300일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책임한 정부의 민낯을 확인했다”며 “특히 새누리당은 더 이상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협의회는 또 “선제 인양기술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정부가 기술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인양을 늦추고 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인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경계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가족협의회는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상대로 실종자 가족과의 면담에 조속히 나서줄 것과 함께 진상 규명 활동에 방해하지 말아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가족협의회는 “새누리당은 가족협의회와의 면담을 잡고 제대로 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신속한 출범, 진상 조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더 이상의 방해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협의회는 “소위 실종자라 불리는 아홉 분을 하루라도 빨리 다시 만나고 싶은 바람 하나만을 안고 이곳 광주까지 견고 또

걸어왔다”며 “빠른 조카이라도 먼저보고 싶다는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 가족들의 절규를 담고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4·16 가족협의회가 꾸린 도보행진단은 지난 8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 세월호 선제 인양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행진,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지역으로 행진을 이어갔다.

도보행진단은 오는 14일 진도군 팽목항에 도착, 마지막 일정으로 문화제를 진행하며 19박 20일 동안의 행진 일정에 마침표를 찍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호남대, 전교생에 중국어 가르친다

이번 학기부터 교양과목 신설 장학금·중국 연수기회 제공도

호남대학교가 모든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친다. 호남대(총장 서강석)는 ‘슈퍼 차이나’ 시대를 맞아 국내 대학 최초로 전교생에게 중국어 교육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호남대 교양연수원은 이번 학기부터 중국어를 교양 과목으로 확대·신설하고, 중국어 학업 성취도에 따라 장학금 지급과 중국 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 원어민 교원 4명을

추가로 임용해 21명의 원어민 교수진을 갖추고 중국어를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신입생들은 중국어 관련 8개 커리큘럼 중 1개 이상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이중 항공서비스학과와 호텔경영학과, 중국어학과, 조리학과와 등 중국으로의 진출이나 접착이 많은 학과의 신입생들은 중국어를 필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호남대는 지난해 광주시와 ‘차이나 프렌들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G2로 급부상한 중국과 광주·전남을 연결하는 공식적인 창구 역할을 맡게 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채업자 돈받은 최민호 판사 정직 1년...역대 최고 징계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9일 역대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최 판사에 대한 심의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최 판사가 2010~2011년 ‘명동사채왕’이라 불리는 최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억1000만원을 받

은 혐의와 관련,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라고 밝혔다. 2009년 총 1억5864만원을 받은 혐의에 관해선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최 판사에 내려진 정직 1년은 법에서 정해놓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실무상으로도 정직 10개월을 초과하는 중징계는 없었다. /연합뉴스

2015년 신입생 모집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과
홈페이지 www.suibe.co.kr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모집 기간 ▶ 2015년 2월 28일까지 (중국어 미학습자 신청가능)

모집 인원 ▶ 30명

수강 기간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 30시간, 총 720시간 이수)

강의 내용 ▶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www.gochina.co.kr
중국 전문 입학업체
입학상담문의 GOChina
233-9582 (중)구오말리

1636 결코 믿음소망 말하세요

인생에 대박찬스
한글전화번호 1636에서 잡으세요!

1636 KTX, 1636 롯데면세점, 1636 삼성카드, 1636 KBS, 1636 YTN

지금 잡으세요! 기회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기회입니다. 전국민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국가보신과 IT가 하나되어 펼쳐진 사업
전국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불경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
평생 연금처럼 보장받는 사업

대리점(사업자) 모집
영업사원 모집(생활보장)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도스크리아 '홍 김사연' 영이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주)올피아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